

미국서부 5개 대학 도서관 탐방



김정아_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산정보과

시간은 정말 빨리도 흐른다. STIMA 해외교육훈련 파견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외도서관 연수를 다녀온 지 벌써 9개월이나 지났다니 말이다. 다만 그때 당시의 설렘과 연수직후에 느꼈던 의욕이 많이 사그라진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도 STIMA Bulletin에 실을 원고를 작성하면서 지난 탐방 때의 감회를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었고, 그때 찍은 사진을 다시 한 번씩 넘겨보며 7박 8일을 동고동락 했던 일행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한번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감사한다.

필자는 지난 2007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추진한 미국서부 5개 대학도서관

연수단에 전문도서관 직원임에도 특별회원으로 참가하여 버클리대, 스탠포드대, UCLA, 남가주대,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을 견학하였다. 미국 도서관 견학이지만 각 도서관마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인사서의 안내로 방문 일정이 구성되어 있어 언어의 장벽(^)은 쉽게 뛰어 넘을 수 있었다.

미국 대학도서관의 장서량 및 예산, 직원 현황은 사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웬만하면 몇 백만의 장서수와 몇 백만 달러의 예산, 수백 명의 직원으로 도저히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뿐더러 실감도 잘 안 나기에 탐방기 내용에서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UC Berkeley

첫째 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시차극복의 여유도 없이 버클리대로 향함으로써 정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학생 수 31,000명 중 동양계가 45%라고 하니 정말 지나가는 학생이 거의 한국학생인 것 같아 낯설지가 않았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 갈 일정을 우리 때문에 연기하셨던 사서선생님의 안내로 중앙도서관인 Doe Memorial Library와 하버드대와 함께 최고의 장서량을 자랑한다는 동아시아 도서관을 살펴보았다. 대학 내 장서량이 워낙 많고 귀중본도 많다 보니 파손된 책을 수선하는 “Preservation Department”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 또한 버클리는 현재 구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매일 3,000여 권의 책을 스캔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도서관 운영에서 우리와 가장 다른 것은 주제사서 제도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같이 광범위하게 주제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학문분야별, 언어별로 주제사서를 뽑아 그들에게 각 분야의 예산, 장서수집,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수들과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었다.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에 따라 해당분야의 예산, 장서구성이 달라진다고 하니 그 중요성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주제전문사서 개인마다의 자부심 및 역량이 상당하고 사서의 높은 사회적 지위도 체감할 수 있었다. 우리를 안내한 한국인 사서들은 모두 각 대학에서 한국학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제사서들이었다.



Stanford University

둘째 날 방문한 곳은 Palo Alto시에 소재한 스탠포드 대학이다. 중세 로마네스크 양식의 Memorial Church, 로댕의 조각공원, 후버 타워 등 관광지로서도 유명한 미국 서부의 최고 사립대답게 부차집 정원과 거실 같은 캠퍼스와 도서관을 보니 “아! 누구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맘뿐이었다. 막 스탠포드로 새롭게 부임한 한국학 사서의 안내로 중앙도서관인 Cecli H. Green Library와 동아시아 도서관인 있는 J. Henry Meyer Memorial Library를 견학하였다. 스탠포드대는 생의학 분야 전자저널 아카이브인 HighWire Press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방문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했다.

매년 늘어나는 장서량으로 인한 공간문제에서 자유스러운 도서관은 아마 없을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도서관도 전자자원의 확대에 의해 더 이상 도서관 공간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캠퍼스 내에 여러 개의 Remote Storage를 운영함으로써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자료 폐기라는 것은 고려조차도 하지 않고 별도 공간에 모두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거대한 땅을 가진 미국만의 특권이지 싶고 우리 실정에서는 적용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그냥 부럽기만 한 점이였다.

마지막으로 일행 중 한 분의 “스탠포드대학 도서관만의 운영상의 장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담당 사서분이 “도서관장의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답을 하셨다. 현 스탠포드대학 도서관장은 사서출신의 CEO로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Stanford University Press, HighWire Press의 총괄책임도 동시에 맡고 계시다고 한다. 대학 내 인사들뿐만 아니라 도서관 직원들 모두 관장의 지위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하니 같은 도서관인으로서 외국의 사례지만 뿌듯하기만 하였다.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연수 중간에 살짝(?) 들어간 관광코스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랜드캐년, 라스베이저스를 경유하여 세 번째로 방문한 도서관은 UCLA이다. 도착과 동시에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 Conference Center에서 UCLA 도서관의 현황에 대해 질의응답



〈UCLA Library Conference Center에서 질의응답 중〉

의 시간을 가지고 중앙도서관인 Powell Library와 동아시아 도서관을 견학하였다. UCLA도 전자자료 구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현재 정책적으로 인쇄자료와 전자 자료의 구입 비율을 4:1 정도로 가져가고 있었고, 10개의 캠퍼스를 가진 워낙 거대한 대학이다 보니 UC 캠퍼스 자체 라이선싱도 구성하고 있었다. 최근 도서관 이용통계 분석 결과 전자자료, 인쇄자료가 모두 400만 건 정도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인쇄자료에 대한 이용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니 전자자료 구입으로만 향해 달려가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장서 구성시 한번쯤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레퍼런스 데스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개의 온라인 채팅서비스를 운영하고 식당 등 공공장소에 직접 나가 레퍼런스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해 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네 번째 방문 도서관은 가장 열성적으로 우리 일행을 안내하고 설명해 준 USC였다. 여기에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Research Library인 Edward L.

Doheny Jr. Memorial Library와 교육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Teaching Library인 Thomas and Dorothy Leavey Library를 두 개 조로 나누어 한국인 사서 선생님들의 안내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Special Collection을 방문했을 때 신입생들로 보이는 10여명의 학생들을 인솔하고 다니면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던 나이가 지긋하신 사서

선생님의 모습도 무척 새롭게 느껴졌다. USC는 특히 Information Commons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Teaching Library인 Leavy Library에 정보검색, 이용자교육, 그룹 연구공간, 네트워크 프린팅 공간을 설치하고 전자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의 전자정보실 개념보다는 좀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 참고사서 뿐 아니라 검색보조원, 컴퓨터 상담원을 배치하여 각자의 임무를 맡으면서 이용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USC 캠퍼스에 있는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LA에 머물 때 (1936-1946) 렌트해 머물렀던 곳으로 1층은 도산 유물 전시관을 겸한 한인사회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한국학연구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Los Angeles Public Library

마지막 날 방문한 곳은 영화 디워에서 보았던 US뱅크 타워가 보이는 LA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공공도서관 LA Public Library이다. LAPL은 Central Library 외 71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71개 Library의 2006년 방문자수가 1천 4백만 명이 라고 하니 그 이용률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용자층을 보 아도 아동, 노인 외에도 주변 직장인들의 이용률이 매 우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미국인의 문맹률이 높다 보 니 이 도서관 Adult Literacy Center에서는 자원봉 사자와 함께 1,000 couple 이상의 수업이 진행 중이 라고 하며 이용자 홍보를 위해 PR 부서를 따로 두고 쇼핑백 제작, 책자 발간(Library Event), School Visit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각 방문도서관 마다 한국학 주제사서들의 친절한 안 내로 도서관을 구석구석 볼 수 있고, 시설, 재원 등 최 상의 투자를 하는 미국대학들의 도서관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만 방문 전에 철저한 사전준 비를 해서 일방적으로 소개만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대 전문가로 토론도 함께 하는 심도 깊은 시 간을 가지지는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다. 또한 본 일정이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주관이다 보니 대학도서관 방문

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전문도서관 사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웠고, 그나마도 한국학 사서들의 안내를 받 다 보니 중앙도서관, 동아시아 또는 한국학 도서관에 치중되어 과학기술관련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한 것이 더더욱 아쉽기만 했다. STIMA도 향후에는 전문도서 관 방문단을 구성할 만큼 더욱더 역량을 키워나가길 기 대해 본다.

아울러 회원이 아닌 본인의 연수단 참가를 허락해 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와 타국에서 동고동락한 일행 분들, 우리를 친절히 안내해 주신 각 대학도서관 사서선생님들, 또한 7박8일 동안 우리 일행을 가이드 하며 미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준 다 니엘 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LA Public Library에서 일행들과 함께 〉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필자)

